

SKK BUSINESS SCHOOL NEWSLETTER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소식지 2024.01 Vol.9



3

경영대학
FOCUS NEWS

10

교육프로그램별
NEWS

경영학과&일반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경영전문대학원(EMBA)
경영대학원(IMBA)
핀테크MBA
W-AMP 최고경영자과정

35

FACULTY
NEWS

교수 동정
신임 교원소개

43

DONATION
NEWS

동문회 소식
기부금 소식

47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주소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발행인

이석규

2023년 겨울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성료

경영대학은 2월 11일(토) 오전 11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지하2층 새천년홀에서 2023년 겨울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을 거행하였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72명(경영학과 222명, 글로벌경영학과 50명), 일반대학원 석사 53명(경영학과 25명, 핀테크융합전공 28명), 경영전문대학원 EMBA 100명, 경영대학원(IMBA) 124명,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1명, 일반대학원 박사 6명 등 총 556명이 학위를 받았다.

교기입장을 시작으로 개식사, 국민의례/애국가 제창, 내·외빈 소개, 경영대학장 축사, 동문회장 축사, 공로상/성적연구력우수상 및 사회나눔상 시상, 학위증 및 학위기 대표 수여와 졸업생 전원의 릴레이 악수가 진행되었다. 이날 이석규 경영대학장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경영대학 졸업생들을 축하한다”며 “비록 오늘 졸업을 하여 학교를 떠나지만 성균관대 경영대학의 구성원으로 동

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앞으로의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날 경영대학 총동문회 김동필 동문회장, 경영전문대학원 EMBA 김진기 동문회장, 경영대학원IMBA 김정태 동문회장 등 외빈들과 여러 경영대학 교수들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가족에 대한 졸업생 전체의 감사인사와 학사모를 머리위로 날리는 세레모니를 끝으로 학위수여식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경영대학-(주)컴앤에스 이우현 대표이사,
‘컴앤에스 학술연구비’ 지원 협약 체결

경영대학은 (주)컴앤에스 이우현 대표이사와 지난 4월 18일(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영관 이현구첨단강의실(33406호)에서 ‘컴앤에스 학술연구비’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체결식에는 기부자인 이우현 회장(일반원 경영 02, (주)컴앤에스 대표이사)을 비롯하여 경영대학동문회(김동필 회장, 이현구 회장 이증상 사무총장), 경영전문대학원동문회(김진기 회장, 사동선 사무총장), 경영대학 운영위원(이석규 학장, 최영수 부학장, 김상균 부원장, 장영봉 IMBA학과장, 김영상 EMBA학과장, 김지영 일반대학원 학과장, 김용석 MIS 전공주임교수, 염동기 행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컴앤에스 학술연구비’는 이우현 회장의 기부로 2023년 신설되었으며 경영대학 우수 교원의 학술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연도별 지원 전공 분야를 설정하여 과제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홀수해(2명)에는 재무금융, 회계전공과 짝수해(3명)는 경영정보·생산운영, 마케팅, 매니지먼트전공 교원을 선발하며 연구비 수주과제 국제 A1급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이우현 회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동문회의 뛰어난 선배님들 기부행렬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다. 연구 논문, 연구비 수주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교원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경영대학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매년 2,000만원씩 기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경제대학 합동 문화제 개최-연합 만우절 문화제 “그해 상경은”

지난 3월 31일(금) 12시~18시까지 대운동장 및 경영관 앞에서 2023학년도 경영·경제대학 합동 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지난 2022년 4월 만우절 행사에 경영대학, 경제대학 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된 바 있었으며, 올해에는 기존의 단조로움에 탈피하여 문화제 성격의 만우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영/경제대학 학생회가 연합하여 문화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그해 상경은”은 이번 제23대 경영대학 학생회 BE:ONE이 다른 단과대학과의 연합하여 기획한 첫 번째 사업이다. 경제대학 학생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영대학을 넘어 성균관이 교류하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경험할 수 있었다.

박성연 학우(제23대 경영대학 BE:ONE 학생회장)는 “고등학교 시절 교복을 다시 입고 대학교를 찾는 만우절 문화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코로나 19로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한 저에게는 또 다른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상경대학과 성균관의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복을 입고 뱃나루 곁에서 사진을 찍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경영대학 및 성균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며,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중봉동문장학금 수여식 및 이현구 회장 중봉학술연구기금 기념보드 제막식 개최

경영대학은 지난 6월 13일(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영관 이현구 첨단강의실(33406호)과 경영관 1층 로비에서 '제3회 중봉동문장학금 수여식 및 이현구 회장 중봉학술연구기금 기념보드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기부자인 이현구 회장(경영 68, (주)까까사웍스 회장)을 비롯하여 김동필 경영대학 동문회장, 전용주 경영대학 동문회 명예회장, 이우현 경영전문대학원 동문회 명예회장, 이증상 경영대학 동문회 사무총장, 이석규 학장, 안희준 경영대학 전학장, 경영대학 운영위원(최영수 부학장, 김상균 부원장, 장영봉 IMBA학과장, 김영상 EMBA학과장, 오종민 글로벌경영학과장, 김용석 MIS 전공 주임교수, 염동기 행정실장), 제3회 중봉동문장학금 5명, 제1회 중봉동문장학금 이규호 학생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3회 중봉동문장학금으로 선발된 학생은 김채연, 이채은, 장서윤, 최선호(이상 경영학과), 이민서(글로벌경영학과) 총 5명이다. 중봉동문장학금의 지원 기준은 학사과정 2, 3학년 재학생 중 직전 2개 학기 취득학점이 각각 12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재학 중 평점평균이 4.0이상이었으며, 경영대학 기금운영위원회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였다.

이현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내가 받은 은혜를 모교 후배들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며 “경영대학 후배들이 능력뿐 아니라 인성, 예의도 고루 갖춘 지성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규 경영대학장은 “논어에는 ‘덕치를 시행하면 많은 이들이 따라온다(태평성대)’고 하였다. 이현구 회장님의 말씀처럼 좋은 인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라며 “장학금을 받게 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품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오늘 내가 받은 이 감사함을 훗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하며 대학생활 동안 깊은 고민과 많은 도전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채연 학생(경영학과, 제3회 중봉동문장학금)은 “베풀어주시는 도움을 잘 기억하고, 언젠가는 나도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며 장학생 대표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규호 학생(글로벌경영학과, 제1회 중봉동문장학금) 역시 “학업을 하는 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중봉동문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현구 회장님 같은 분들의 관심어린 도움이 곳

2023년 여름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성료

경영대학은 8월 19(토) 오전 11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지하2층 새천년홀에서 2023년 여름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을 거행하였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97명(경영학과 160명, 글로벌경영학과 37명), 일반대학원 석사 23명(경영학과 18명, 핀테크융합전공 5명), 경영전문대학원 EMBA 52명, 경영대학원(IMBA) 73명, 일반대학원 박사 2명 등 총 375명이 학위를 받았다.



2023 호주 Monash Business School Global Executive MBA 방문단, 본교 경영대학 방문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학장 이석규)는 지난 9월 11일(월)부터 13일(수) 3일간 호주 Monash Business School Global Executive MBA에서 33명이 방문하였다. 국제 교류를 위한 양교 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국제교류 센터장인 김지영 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어 김용준 교수의 Korean Government-Chaebol Relationships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조성희 교수의 Korean Organisational Culture 특강으로 첫 날을 마무리하였다.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문철우 교수의 Corporate Strategies for Entering the Korean Market 특강과 오후에는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아산 플랜트에 방문하여 투어를 진행하였다.

곳에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티고 힘내서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제3회 중봉동문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경영관 1층 로비에서 「이현구 회장, 중봉학술연구기금 기념보드」 제막식을 진행하였다. 기념보드에는 모교 경영대학 교수의 연구지원, 학생들의 학업지원으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경영대학이 되기를 기원하는 이현구 회장의 고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

교기입장을 시작으로 개식사, 국민의례/애국가 제창, 내·외빈 소개, 경영대학장 축사, 동문회장 축사, 공로상/성적연구력우수상 및 사회나눔상 시상, 학위증 및 학위기 대표 수여와 졸업생 전원의 릴레이 악수가 진행되었다.

이날 이석규 경영대학장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경영대학 졸업생들을 축하한다”며 “비록 오늘 졸업을 하여 학교를 떠나지만 성균관대 경영대학의 구성원으로 동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앞으로의 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날 경영대학 총동문회 김동필 동문회장, 경영전문대학원EMBA 김진기 동문회장, 경영대학원IMBA 김정태 동문회장 등 외빈들과 여러 경영대학 교수들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가족에 대한 졸업생 전체의 감사 인사와 학사모를 머리 위로 날리는 세례모니를 끝으로 학위수여식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마지막날에는 문철우 교수의 Korean Economy & Society관한 특강에 이어 김영한 교수의 The Face of Risk: CEO Facial Masculinity and Firm Risk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후 호주대사관에 방문하여 Catherine Raper 주한 호주 대사관과 투어를 진행하였다.

한편 Monash Business School은 글로벌 규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AACSB, EQUIS와 같은 국제적인 경영 교육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학교이다.



<제1회 컴앤에스 학술연구비 전달식> 개최

경영대학에서 10월 17일(화) 경영관 3층 관청혁신연구센터에서 <제1회 컴앤에스 학술연구비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기부자인 이우현(경영 일반원 02, (주)컴앤에스 대표이사) 대표 이사를 비롯하여 김동필 경영대학 동문회장, 오유식 경영전문대학원EMBA 명예회장, 이증상 경영대학 동문회 사무총장, 사동선 경영전문대학원EMBA 사무총장, 이석규 경영대학장, 최영수 경영대학 부학장, 안희준 前경영대학장, 김상균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김용석 MIS 전공주임교수, 김영상 EMBA 주임교수, 서정원 교수, 염동기 행정실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이우현(컴앤에스 대표이사) 회장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연구 논문, 연구비 주주 등 여러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내는 교수님들

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석규 경영대학장은 “바쁜 와중에 참석해주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원받은 학술연구비가 교수님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컴앤에스 학술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서정원 교수(재무전공)와 최영수 교수(회계전공)가 선정되었다.

한편 컴앤에스 학술연구비는 이우현 회장의 기부로 2023년에 신설되었으며 경영대학 우수 교원의 학술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연도별 지원 전공 분야를 설정하여 과제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출수해(2명)에는 재무금융, 회계전공이며 짝수해(3명)는 경영정보·생산운영, 마케팅, 매니지먼트전공 교원을 선발하며 연구비 주주과제 국제 A1급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5회 중봉(中峰) 학술상 시상식 및 중봉학술연구비 전달식 개최

지난 9월 22일(금) 경영대학에서는 라까사호텔 6층 로프트하우스에서 <제5회 중봉(中峰) 학술상 시상식 및 중봉학술연구비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기부자인 이현구 회장(경영 68, ㈜라까사웍스 회장)을 비롯하여 김동필 경영대학 동문회장, 김익래 명예회장(선명회계법인), 이증상 경영대학 동문회 사무총장, 이석규 경영대학장, 최영수 경영대학부학장, 최종범 명예교수, 김용석, 김지영, 배준형, 신지선, 오종민, 유상석, 이건창(이하 교수), 염동기 행정실장이 참석하였다.

이현구 회장은 “열심히 연구에 힘써준 분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술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5회 중봉학술상 수상자는 국제 S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경영대학 연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오종민(재무 전공), 배준형(매니지먼트 전공) 교수가 선정되었다. 더불어 중봉학술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김지영(마케팅 전공), 신지선(매니지먼트 전공), 이건창(경영정보 전공)교수가 선정되었다. 중봉 학술상은 경영대학 교수들이 경영학 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최고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토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ACSB 실사단, 경영교육인증 3차 재인증을 위해 본교 경영대학 방문

지난 10월 30일(월)과 31일(화), 이틀에 걸쳐 세계경영대학협회(이하 AACSB,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실사단이 성균관대 경영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실사에는 Dr. Fenwick, Ian(Chair / Sasin School of Management, Chulalongkorn Univ. (Thailand)), Dr. Spangenberg, Eric R.(Member / Dean, The Paul Merage School of Business at the Univ. of California (USA)), Dr. Osono, Emi(Member / Dean, School of International Corporate Strategy, Hitotsubashi Univ.(Japan)) 3명이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을 찾았으며, 이석규 경영대학장, 최영수 경영대학부학장, 서정원 교수(AACSB 총괄) 등이 방문에 화답했다.

지난 2009년 경영대학(경영, 글로벌경영, EMBA, IMBA, 보험금융, 금융,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총 8개)에서 AACSB 경영교육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2014, 2019년 2차 재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번 실사는 AACSB가 수여하는 경영교육인증 3차 재인증 수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실사단은 교수진, 커리큘럼, 연구

임경윤(경영79, ㈜리코자산운용 회장) 첨단강의실(33506호) 헌판식 개최

지난 11월 24일(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영관 임경윤 첨단강의실(33506호)에서 <임경윤 첨단강의실 헌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기부자인 임경윤 회장(경영79, 차기 경영대학 동문회장)을 비롯하여 김동필 경영대학 동문회장(경영 60), 김원갑 회장(경영72), 정영화 회장(경영72), 이증상 경영대학 동문회 사무총장(경영 74), 신상훈 경영대학 특임교수(경영 70), 이석규 학장, 최영수 부학장, 김상균 부원장, 김지영 일반대학원 학과장, 김영상 EMBA 주임교수, 염동기 행정실장, 박성연 학생회장 및 학생회장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 문화의 정착 및 광범위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제2경영관건립기금으로 5억을 기부한 차기 경영대학 동문회장인 임경윤 회장에게 강의실을 헌정하였다. 헌판내용은 “임경윤 동문(경영79, ㈜리코자산운용 회장)의 고귀한 기부의 뜻을 기리고자 이 강의실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이어 임경윤 회장의 인사가 전해졌다. 임회장은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며 앞으로 선배로서 후배들과 소통하며 더 많은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적, 학생지원 등 여러 분야의 평가를 하며 성균관대학교 총장과 교원의 면담을 비롯하여 교원, 직원, 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재인증 확정 여부는 2024년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AACSB는 세계 각국의 경영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이는 경영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인증함으로써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16년 미국의 하버드, 컬럼비아, 예일, 코넬, 시카고 등 17개 대학교의 경영대학이 회원으로 설립된 이후 확대되어왔다. AACSB는 경영학 교육이 갖추어야 할 국제적인 경영교육 기준을 설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엄정한 평가 및 심사 절차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교육기관에 경영교육 국제인증(AACSB Business Accreditation)을 수여하며, AACSB 인증은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국제인증이다.



이어 이석규 학장은 “항상 많은 도움을 주는 동문회장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영대학 학생들이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성연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이 자리에 초대해주어 감사하며 훌륭한 경영대학 선배님들 덕분에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사회에 나가 선배님들의 내리 사랑을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사를 전했다.

제3회 건봉·월하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 11월 24일(금) 경영대학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제3회 「건봉·월하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건봉·월하 장학금 수여식에는 기금의 기부자인 김원갑 동문(경영 72, 현대종합상사/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건봉장학재단 이사장), 정영화 동문(경영72, 월하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동필 경영대학 동문회장, 이석규 경영대학장, 최영수 부학장, 김상균 부원장, 오종민 글로벌경영학과장, 김영상 EMBA 주임교수, 염동기 행정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건봉·월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황준석, 김영환(이상 글로벌경영학과), 이경희, 배자영(이상 경영학과) 총 4명이다. 이날 이석규 경영대학장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떠올려 주길 바라며, 기부해주신 동문회장님의 뜻을 잘 이어받아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필 동문회장은 “사회에 나가서 오늘 받은 고마움을 후배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하며,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영환(글경 20)학생은 “선배님들이 주신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저 또한 장학재단을 만들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경희(경영 20)학생은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이며, 재정적인 문제를 선배님들의 장학금 덕분에 원활하게 대학생활을 마칠 수 있어 감사하며,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간직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배자영(경영 23)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만큼 학업에 열중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원갑 동문은 “학생 여러분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가장 긴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큰 꿈을 가져라”고 답사를 전했다.

정영화 동문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더라도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답사를 전했다.



경영대학 學窓會(학창회) 발대식 개최

지난 12월 1일(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에서 <경영대학 學窓會(학창회)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경영대학동문회(김동필 회장, 이현구 회장, 신상훈 특임교수, 전용주 회장, 임경윤 회장, 이증상 사무총장) 및 경영전문대학원동문회(김진기 회장, 이우현 회장, 사동선 사무총장), 학교(유지범 총장, 이석규 경영대학장, 손세형 자산관리처장, 최영수 경영대학 부학장, 김상균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유지범 총장은 “총장 취임 이후, 경영대학 동문들의 염원이 담긴 제2경영관 신축 관련 내용을 급선무로 보고받았다고 하며, 장기플랜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손세형 자산관리처장은 “성균관대학교 Hub-Square(가칭) 조성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동문들의 염려사항을 고려하여 Fast-Track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김동필 회장은 동문들을 대표하여 “빠른 시일 내 제2경영관 착공을 당부하고, 제2경영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석규 학장은 “동문회의 지원에 힘입어 경영대학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하며, 경영대학 學窓會(학창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하였다. 경영대학 學窓會(학창회)는 경영대학 학장 및 동문회 간 정기적인 교류 및 경영대학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날 발대식 이후, 연간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中峰賞(중봉상) 역대 수상자 송년회 개최

지난 12월 1일(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6층 패컬티클럽에서 <中峰賞(중봉상) 역대 수상자 송년회>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중봉학술연구비 기부자인 이현구 회장과 경영대학동문회(김동필 회장, 전용주 회장, 이증상 사무총장) 및 경영전문대학원동문회(김진기 회장, 이우현 회장), 학교(이석규 경영대학장, 최영수 경영대학 부학장, 김상균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최관 前학장, 김영한 교수(특강연사)), 역대 중봉상 수상자(최종범 前학장, 장영봉 교수, 오종민 교수, 배준형 교수, 김도현 교수, 김안드레아 교수, 김다혜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현구 회장 및 김영한 교수가 참석자들을 위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현구 회장은 “지난 세월 돈을 쫓지 않고 신뢰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며 사업을 진행하였고, 까사미아 창업 당시 자본금 2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신세계에 매각시까지 회사가치를 2천억원까지



올렸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중봉학술상 및 중봉학술연구비 지원금액을 올려 좋은 연구논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김영한 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 발간한 「부자, 관상, 기술」 저서를 기반으로, OpenAI 기술을 활용한 관상 관련 특강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규 경영대학장은 “앞으로도 경영대학에 많은 사랑을 주시는 동문들을 모셔, 경영대학의 우수한 교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였다.

경영학과 & 일반대학원 소식



Q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인소개와 이번 학생회 BE:ONE에 대하여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게 된 경영학과 20학번 박성연이라고 합니다. 제23대 학생회 BE:ONE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펼쳐질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맞는 학생회를 마련하고, 단합된 경영인이 서로를 본받으며 상호 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경영대학을 만들고자 합니다.

Q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입학 후 줄곧 경영대학 학생회에 몸담아왔던 저는 학생회에 애정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학생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팬데믹으로 활발한 대학 생활을 하지 못했던 저이기에 다채롭고 건강한 경영대 문화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활기를 띠고 하나가 될 경영대를 만들어 나가고픈 저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Q BE:ONE 사업 소개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희 BE:ONE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경영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 코로나19로 시행되지 못했던 “기업탐방”을 다시 시도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강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둘, 경영대학 교수님과 학우들 간 소통창구 “사제동행 진로탐색반” 개설을 통해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취업과 관련된 멘토링 제도의 개선을 이뤄낼 것입니다.

[인터뷰] 제23대 경영대학 학생회장 박성연(20학번)

셋, 졸업 기준인 인성품 취득을 위한 경영대학 “단체 봉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봉사활동의 참여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경영대학 학우분들을 위한 새로운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Q 학생회를 이끌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감”입니다.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하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대학 학우들이 어떠한 점이 불만인지, 어떠한 점을 더 원하는 지 학우들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려고 합니다.

Q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회 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완화되어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경영대학은 조금씩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생기와 하나 됨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펼쳐질 시대와 상황에 맞게 서로의 살결이 맞닿으며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의 형태를 만들어 다채롭고 건강한 경영대 문화를 형성하려 합니다.

저희 BE:ONE이 약속드린 사업 중 “과잠의 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경영대학 학우분들께서 같은 날 모두 학과 점퍼를 입고 학번 관계없이 교류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문화 콘텐츠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대학 학우분들의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더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학번의 경계 없이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는 경영대학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되어 더 높이”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께서 저희를 믿어 주신 만큼 보답하며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성장하는 BE:ONE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발해질 경영대를 위해, 그 속에서 더 높이 상승할 경영인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의 중심에 BE:ONE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영대학 학생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학년도 1학기 Job학다식(진로멘토링) 개최



2023학년도 1학기 <Job학다식(진로멘토링)>이 5월 1일(월)에 실시했다. 선후배 네트워크를 교외로 확대하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브랜드’를 강화하며 학과 로열티 제고 및 추후 멘토링 인적 네트워크 pool 확대를 기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경영학과생 총 8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졸업선배의 재직기간은 카카오, 삼성서울병원,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다.

이날 참석한 남연주(경영 22)학생은 “2학년이 되고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던 중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진로콘서트에 참

여하게 되었다. 평소에 잘 몰랐던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관료제 특성을 지닌 조직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조직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할지 고민해보며, 미래에 대해 계획해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진로콘서트에 참여한 임채영 멘토는 “저도 경영학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직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미약하지만 제 경험과 생각들이 미래를 계획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손영석 멘토는 “같은 학과 선배로서 후배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보람된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임상현 경영대학 학생회 BE:ONE 정책국장은 “경영학과 학우&선배들과 진로에 관해 뜻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보(경영 16)학생 인터뷰_성적/연구력 우수상 동문회장상 수상 관련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봄에 졸업을 맞이하게 된 경영학과 16학번 이동보라고 합니다. 대학생활 동안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과 함께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 인터뷰가 많은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들 동안 저와 같이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이 컸던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Q 2023년 학위수여식에 성적/연구력우수상 동문회장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생활과 학업에 열정을 쏟았다고 자부해왔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기에 정말 과분하면서

Q 학부시절에 참여했던 교내외 활동이 있을까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대학생활 동안 동아리 및 투자대회 참가, 아르바이트, 인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법인 인턴으로서 근무했던 경험과 학회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이론만 학습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을 쌓고 싶어, 유예생



시절 현대회계법인에서 2개월간 근무하며 사업비 정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특정 사업의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였고, 파트너 회계사님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업무 체계를 정립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에서 동계인턴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감사보조업무를 수행하며 회계법인과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회계사로서 성장해 보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남은 수험생활을 더욱 열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이후에는 기업가치평가를 더 배워보고 싶어 금융학회 ECN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학회에서 열정적인 학우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BGF리테일이라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DCF 모델링을 통해 직접 적정주가를 산정해 보며 Valuation해보았던 경험은 공인회계사로서 추후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여러번의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았는데, 본인만의 비결이 있나요?**

우수한 학우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우수장학금을 여러 번 받게 된 것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에 특별한 비결이라기 보다는 저의 학습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흥미가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수강신청을 할 때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과목들 위주로 수강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강의를 들으며 과목별로 예상되는 학습시간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학습하기가 어려운 회계나 재무 관련 과목의 경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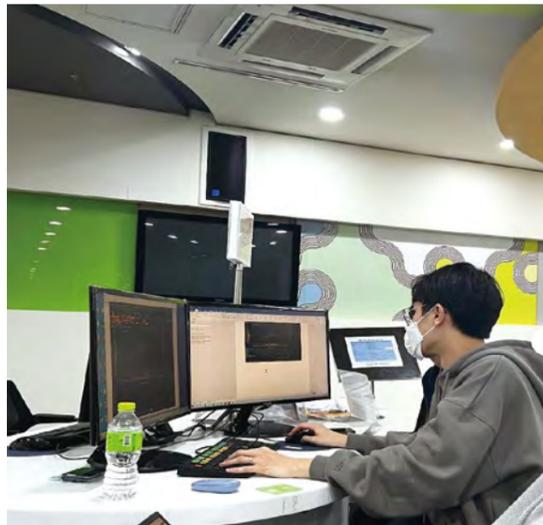
업 당일에 복습하고 시험 전에도 다른 과목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여러 번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 전 각 과목별로 최소 3회독을 목표로 공부하였고, 계획한 학습량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도 졸업 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우선은 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근무하며 기업을 올바르게 감사하고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본부에서 경력을 쌓은 뒤에는 Valuation 등 재무자문 분야에서 기업의 재무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업무를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무경험을 쌓다 보면 새로운 분야에 흥미가 생기는 등 기존의 계획이 변경되는 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경력을 쌓으면서 다른 분야를 탐색하며 유연하게 진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도전과 기회에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망설이면서 지나쳤던 도전과 기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이러한 도전이나 기회를 만났을 때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현실적인 여건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제가 그랬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결국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여기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직접 부딪혀 볼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에 무관하게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빛나는 앞날을 향해 나아갈 학우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Job학다식(진로멘토링)> 개최



2023학년도 2학기 <Job학다식(진로멘토링)>이 10월 4일(수), 경영관 계단 강의실에서 진행했다. Job학다식은 선후배 네트워크를 교외로 확대하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브랜드'를 강화하며 학과 로열티 제고 및 추후 멘토링 인적 네트워크 pool 확대를 기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이 날 멘토로는 우지원(경영17, J.P Morgan transaction analyst)/최다솔(경영14, 비알코리아 아이스크림 PM)/최창현(경영11 Big4 전략 컨설턴트)/이준호(경영12 신세계 재무) 졸업선배로 참석하였다.

최창현(경영11) 졸업선배는 “저도 경영학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난다, 후배님들이 미래를 계획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다솔(경영14) 졸업선배는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후배님들 앞에 강연자로 설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김기현(경영 19)학생은 “내년에 졸업 예정인데 진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해서 고민이었다. 그러다 경영대학 학생회가 주최한 진로콘서트에 현장에서 뛰는 선배님들이 오신다고 하여 참석하였다. 현직자 선배님들의 취업준비 과정과 자기 직무의 장단점이 흥미로웠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 학생의 관점에서 궁금한 점들을 현직자의 관점으로 생생히 들을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현재 고민 중인 직무 방향의 등불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최민혁 경영대학 학생회 BE:ONE 정책국장은 “학우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많이 부족했지만, 참석해주신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배를 위해 먼 길을 해준 선배님들께도 정말 감사한다”고 전했다.

BK21 핀테크 교육연구단 “코리아핀테크위크 2023” 참가



BK21 핀테크 교육연구단(단장 송교직 교수)은 8월 30일(수)부터 9월 1일(금)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금융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코리아핀테크위크 2023”에 참가한다. 박람회에서는 연구단은

“Global AI Finance Research Conference” 등 핀테크 관련 연구와 교육활동을 홍보하고 일반대학원 핀테크융합전공 석/박사 과정과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MBA 과정도 2024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단은 지난 8월 24일(목) “토큰증권(Securities Token) 도입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산학공동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축사와 더불어 코스콤, NH투자증권 등에서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본교 연구진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2023학년도 경영학과 글로벌챌린지(독일) 실시

경영대학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2023학년도 경영학과 글로벌챌린지로 독일을 방문했다. 경영학과 학생들을 위해 글로벌 경험이 부족한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글로벌 세미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 유수의 학생들과 함께 학업하며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방문국가는 독일 베를린이며 Berlin School of Economics and Law(BSEL)에서 주최하는 International Week on Sustainability 프로그램 참여하였다. 사전에 서류심사 및 ESG분야에 대한 관심 및 열정, 탐방 시 기대효과, 자기소개, 적극성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들과 sustainability week에 참여하여 매일 6시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지속가능과 관련한 정치적, 윤

리적, 데이터통계학적 접근과 circular economy, SDGs, CSR 등 관련 키워드들에 관해 글로벌한 시각을 기르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이번 글로벌챌린지에 참여한 안서현 학생은 “10일간 독일 BSEL에서 Sustainability Program에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SDG와 순환 경제의 정의를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또 사회는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윤리적 소비를 할 동기를 일으킬지에 대한 고민” 하였다고 말했다. 또, 이유진 학생은 “혼자였다면 독일에서의 생활이 힘들었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매일 들었던 수업, 그룹 활동, 현장학습 등이 다 좋은 추억”, “독일에 가기 전 외국 학생들과 지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걱정했지만, 베를린 대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여러 나라의 학생들도 매번 친절하였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3 경영학과 독일 글로벌챌린지 관련 안서현 학우 인터뷰



☞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2학번 안서현입니다.

☞ **이번 2023학년도 경영학과 글로벌챌린지(독일)에 참가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정도 해외에서 살았어요.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언어도 많이 늘고 다양한 경험도 했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확실히 영어를 많이 쓰게 되지 않더라고요. 언어는 안 쓰면 확실히 즐기 때문에 살짝 걱정했죠. 하지만 또 교환학생에 대한 로망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 동안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다 올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에 이

번 프로그램 공지를 보게 됐어요. 제출서류로 어학성적이 필요했는데 마침 올 초에 토익을 봐 놓은 상태였거든요! 비행기표와 숙소가 모두 지원된다고 하니 바로 지원했죠. ‘대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받아 보기’가 제 대학교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지속가능성이랑 순환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기소개서도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들었던 SDG 수업 얘기를 적었어요.

☞ **그 곳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나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일에 머물렀던 10일정도의 시간동안 거의 매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8시까지 학교에 가서 5시까지 수업을 듣고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장소도 견학했죠. 첫 날에는 학생들과 각자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간식을 들고 와서 다같이 아이스브레이킹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김이랑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던 외국 친구들이 기억나네요^^ 강의는 이론으로 가득한 것보다 중간에 토론을 아주 많이 했어요. 하루는 여러 국가로 조를 나눠서 환경정책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 인가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밝히며 이야기 나눴어요. 현장학습도 여러 군데를 갔는데,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빵공장, 미래 핵심 문제에 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관,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마트 등 볼거리가 많은 곳들이었어요.

학기 중에 독일을 갔다 와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더욱 기억에 남는 10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베를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본 건물들, 트램, 그리고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생각나네요. 독일



에선 번기에 쓰이는 물 양이 엄청 적었던 것도 신기했어요.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쉬는 날이나 수업이 끝나는 저녁에는 같이 간 사람들과 알차게 시간을 보냈어요. 베를린 시내를 거의 다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제가 토트넘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데리고 펍에가서 같이 축구도 봤어요^^

㉠ 이번 글로벌챌린지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지속가능성과 순환 경제 프로그램이었다 보니 전반적인 지식을 얻고 현상황을 배웠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의 국가와 비교하면서 토론할 때는 시각을 넓힐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독일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어떻게 독일이 한국과 다른지, 어떤 부분이 발전된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운 건 아니지만 좋은 인연도 얻었어요. 같은 경영학과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10명의 학생이 독일에 같이 간 것 자체가 매우 재밌

었어요. 아마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서 빨리 친해지고 추억을 쌓은 것 같아요. 사전에 대면으로 만나서 어색함을 풀 수 있도록 해준 전원선 선생님과 김지영 교수님의 도움도 컸어요!

㉡ 학우님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아나운서 준비생이에요!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조기졸업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제 학점이 잘 나와줘야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챌린지 프로그램이 제 2학년 생활을 너무 뜻 깊게 만들어줬어요.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아나운서를 준비해볼 계획이라 학교생활을 즐길 시간이 많이 없을 것거든요. 하지만 내년에 열심히 준비하다가 잘 안 풀리면 또 깔끔하게 포기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준비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거 잘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글로벌경영학과 소식

2022 제2회 비즈니스캠프 성공적 시행

글로벌경영학과에서 2022년 10월 28일(금)~2023년 2월 17일(금)까지 약 3개월에 걸친 2022 제2회 비즈니스캠프가 진행되었다. 심수옥 교수(마케팅 전공)와 CJ Livecity가 협력으로 진행하는 비즈니스 캠프이며 이번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기획 구상 및 일정을 계획하여 해외 벤치마킹 사례를 위해 방문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총 4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관련 과제에 맞게 파견희망 국가와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총 11팀을 선발하였다. 최종결과 발표는 2월 17일(금) CJ Livecity 사옥에서 진행되었으며 심수옥 교수를 비롯한 CJ Livecity 심사위원 및 관계자,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최종 우수팀은 유노윤Ho?, SHOONG, (글경) I-DLE 총 3팀으로 선발되었다. 심수옥 교수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스스로 해외파견을 기획해보면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행한



흔적이 다 보이고 느껴졌다. 좋은 결과물을 내주어서 정말 고맙고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라고 전했다. 처음 시도해본 해외 파견 프로그램 형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과제 수행을 위해 자료조사부터 파견국가, 일정 및 방문 장소 등 1부터 10까지 모두 기획을 해보고 시행 및 과제 결과발표까지 마무리해보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다.

2022 동계 글로벌캠프(싱가포르) 성료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2022 동계 글로벌캠프를 싱가포르에서 시행했다. 글로벌캠프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체험과 해외 대학 학생들과 문화적/학술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2학년도에 재개하여 운영하였다.

참가자는 총 25명(학생 20명, 교원 4명, 직원 1명)으로 주요 대학과 현지 기업을 방문하였다. 싱가포르 경영대학(SMU)에 방문하여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Jim Rogers대표의 ‘투자자가 갖춰야할 마인드’ 특강을 들었다. 이후 엄성용 교수의 ‘digital innovation and business analytics in Singapore’ 특강을 통해 경영학도로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응용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 주요기업 탐방으로는 SGX 탐방, Black Rock, 존슨앤존슨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존슨앤존슨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배경지식을 활용해 자료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경험을 하면서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가치판단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2023 SKKU-SMU(싱가포르경영대학) 교류 행사 성료



지난 5월 1일(월), 싱가포르경영대학(이하 SMU) 학생 24명과 교원 1명, 글로벌경영학과 교원 4명, 학생 22명이 참석한 2023 SKKU-SMU 교류 행사를 운영하였다. 본 행사는 2023년 2월 7일(화) 글로벌경영학과가 제6회 글로벌캠프 운영 차 SMU를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이자, 양교의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먼저 학교 및 학과 소개를 갖는 시간을 가지며 글로벌경영학과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으며, 한류에 관심이 많은 싱가포르 학생들을 위해 김현우 대표(카카오 크로스픽처스)가 방문하여 K-콘텐츠 제작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경영대학 조셉킴 교수의 '상대방과의 communication skill'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본 특강을 통해 양교의 학생들은 언어 및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직접 적용하여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는 2023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와 한국 양 국을 오가며 두 대학 간 교류의 장을 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양교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 소상공인(SME) 디지털마케팅 서포터즈 시행



글로벌경영학과에서 김지영 교수(마케팅 전공)와 네이버 주관으로 글로벌경영학과 학생과 SCAN 학회 대상으로 '2023 소상공인(SME) 디지털마케팅 서포터즈'를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신청, 킷오프미팅, 디지털마케팅/검색광고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전문가 특강, 프로젝트 진행, 최종결과보고 및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선발된 9팀이 매칭된 업체와 마케팅 전략을 논의 및 시행하였으며, 6월 12일(월)에 최종결과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최종발표에는 네이버 아젠다리서치 김용환 리더, 오유라 연구위원, 그리고 경영대학 김지영 교수가 참석하여 심사해주었다. 각 팀별로 10분씩 발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심사위원인 김용환 리더, 오유라 연구위원은 "대학생들의 색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기업 측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기발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며 결과를 낸 학생들에게 감사하다." 라고 전했다. 이번 활동을 기획하고 심사를 진행한 김지영 교수는 "이번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된 활동이라고 느껴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유익한 활동들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디지털마케팅 관련 교육 및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팀별로 담당 업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3 SKKU-HKUST(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류 행사 성료



지난 6월 16일(금) 성균관대학교와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이하 HKUST)의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는 총 43명으로 양교의 각 대학의 역사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조셉킴 교수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 강의와 김용석 교수의 'The dominance of Web2 platforms and the rise of Web3'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학생이 함께 들으며 경영학으로서 갖추고 배워야할 자세 및 시대 흐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대학간 교류의 장은 저녁식사 및 레크레이션 행사까지 이어졌으며 양교의 상징 혹은 양 국가의 역사, 지리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며 다각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를 통해 2024년 1월 말~2월 초에 예정된 홍콩에서 개최되는 Global Camp 기간 동안 HKUST를 방문하여 파트너십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2023 글로벌경영인의 밤 성황리에 종료

2023 글로벌경영인의 밤이 11월 24일(금) 글로벌경영학과 제 14대 학생회 AI14U 주최로 성균관컨벤션 웨딩홀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재학생 및 졸업생, 교수들이 참석하여 소통을 시간을 가졌다.

오종민 글로벌경영학과장을 비롯한 장영봉 교수, 행정실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이석규 경영대학장의 축하 영상과 오종민 글로벌경영학과장의 축하 및 건배사가 이어졌다. 이어

14대 김동현 학생회장의 1년간의 활동을 보고하며 14대 학생회장단 이임식 및 15대 학생회장단 취임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2부에서는 글로벌경영학과 밴드 동아리인 스테로이드 공연이 이어졌으며 이번 행사의 컨셉인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에 맞춰 산타의 퀴즈쇼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140여명의 참석하였으며 1년간 학과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한 학생회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다.



경영전문대학원 (EMBA) 소식



EMBA 113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2023학년도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월 11일(토), 21일(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경영전문대학원 EMBA 113기 신입 원우들을 위한 이번 행사는 63대 총학생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석규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영상 학과장의 신입학 환영사가 이어졌다. 내외빈 및 EMBA 63대 총학생회, 교수진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어 총학생회 및 동호회 소개 등이 이어졌으며 레크리에이션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원우들 간의 단합을 도모해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글로벌학습세미나 싱가포르 탐방기_112기 신은경 원우 인터뷰



지난 1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3박 5일간 2023년 겨울방학 글로벌학습세미나로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사전에 신청 안내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사전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글로벌학습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직접 해외를 방문하여 신청자가 많았다. 112기 신은경 원우는 “글로벌학습세미나를 통해 견문과 생각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었다”며 “현업을 떠나 낯선 현장에서 원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엔 실시한 글로벌학습세미나(싱가포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12기 4조 신은경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머니와이즈는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맞춰 의사 및 고소득 종사자들을 주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컨설팅 및 학교 및 기업 금융교육을 해왔고 작년부터는 임원으로 전반적 총괄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엔 EMBA 글로벌학습세미나 수업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신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컸던 것은 학교 수업으로 해외에 간다는 자체가 좋습니다. 워낙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좋아하고 안 가본 국가를 가보는 것은 저의 최대입니다. 거기에 아직 친한분이 많지 않지만 수십명의 원우분들과 함께 갈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이유였습니다. 단 구정 명절연휴를 앞두고 회사 휴가를 내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학점을 받음으로 다음학기 학업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도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그 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현지 기업 방문 및 특강 등)

사실 매일매일이 너무 좋았고 기억에 다 남습니다. 하나만 고르기가 어려운데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금융허브 싱가포르 자체에 관심이 있었고 마침 조별 과제 수행으로 신한은행 싱가포르 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님 및 직원분들을 만났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토가 작고 인구도 적은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왜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적인 싱가포르의 물가, 국민경제 등 사실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준비해주신 특강도 너무 좋았습니다. 현지에서 코리아 푸드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의 인생 및 비즈니스 스토리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거 같습니다. 또한 마침 싱가포르 아트페어(ART SG)가 열리고 있었는데 평소 미술품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짧았지만 주어진 자유시간에 원우 몇 분들과 함께 관람하고 작품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위에 적은 프로그램들보다도 함께 했던 한분 한분 원우분들이었던 거 같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원우님의 또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한 번도 학교에서 뵈지 못했던 원우님을 처음 알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못 나뉠던 속앓기도 나누게 되면서 정말 많은 인적 자산을 얻은 느낌이었고 정말 성균관대 EMBA에는 너무 멋진 분들이 많구나를 느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겠다고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

Q 글로벌학습세미나를 통해 배운 것이 실무(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직을 생각한다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꼭 진로를 바꾸지 않더라도 글로벌 학습 세미나를 통해 견문과 생각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은 분명할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글로벌학습세미나를 통해 현재 금융시장을 좀 다르게 보았고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 제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 세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싱가포르 금융으로는 나름 선진국 궤도에 올랐지만 그 다음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있음을 보았고 NEXT를 조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기 전 조별로 과제를 계획하고(예: 싱가포르 또는 동남아시아 관련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실패 사례, 싱가포르와 다른 나라의 특정 산업 분야 혹은 기업간 비교연구) 과제에 대한 답을 현지 인터뷰나 실제 현장을 보면서 찾게 되는 과정도 흔한 경험이 아니었고 큰 도움이 되었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외에서의 실무에 대한 기회를 생각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Q 아직 글로벌학습세미나를 수강하지 않은 원우들에게 추천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만에 열린 글로벌학습세미나를 원하는 원우분들은 많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약 1주일이라는 시간을 현업을 떠나 국경을 넘어 낯선 현장에서 같은 열정과 동기를 갖고 있는 원우분들과 성대 EMBA 소속감으로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즐겁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여행을 통해서도 나를 찾게 된다고 하는데 글로벌 학습세미나를 통해서 나를 찾고 소중한 원우들도 얻고 학점도 채우는 1석3조입니다. 수강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 적극 완전 추천합니다!

[교수인터뷰]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데이비드로버츠 교수



Q Hello. Professor, nice to meet you. First, please introduce yourself briefly.

안녕하세요.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Dear Mr. Kim, it's a pleasure to meet you. My name is Dave Roberts, head teacher in the University College English Department for Seoul Campus. I am British, and I have a master's degree in TESOL and a bachelor's degree in genetics.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t Sungkyunkwan University for more than ten years, including teaching business communication classes at various levels. My aim is to foster a class environment that encourages collaboration, communication, and an eagerness to participate in class activities and discussions.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부대학의 교양영어 주임교수인 데이비드 로버츠입니다. 저는 영국인이고, TESOL 석사 학위와 유전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10년 이상 다양한 수준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포함하여 영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협업과 소통을 장려하고 수업 활동과 토론에 참여하는 열정을 기르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Q What do students mainly learn in the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class, which is the class you are assigned to?

교수님께서 맡게 된 수업인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수강생들은 주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In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students will learn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for various business situations including:

- Business introductions
- Elevator pitches
- Business presentations
- Meetings
- Interviews

The aim of the course is to help students to develop their confidence and competence in communicating in English in real-life business situations. We will use role plays and scenarios to practice our interactions, and I will teach language points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ach situation. We will also develop writing skills for use in preparing professional emails and reports.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 비즈니스 소개
- 엘리베이터 피치
-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 미팅
- 인터뷰

이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 소통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가상의 시나리오와 상황극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연습을 진행하고, 저는 각 상황에 맞는 언어적 포인트와 의사소통 전략을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이메일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글쓰기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Q Please explain how students can get help in practice through this class.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During this course, I will help students by explaining the course contents, examples, and tasks clearly. I encourage you to ask any questions you may have. We will engage in discussions and group tasks, and these are supposed to replicate real-world scenarios but in a classroom environment that is encouraging and supportive to help develop both skills and confidence to communicate effectively in English.

The course involves lots of practice in using business communication skills. We will analyze the purpose of the

communication and how to listen and share effectively in order to achieve the desired outcome. I will give feedback to students during practice and demonstrate effective strategies as well as showing how to avoid those that are ineffective. I will also give clear and detailed feedback to assignments so students understand the grade they achieved, what they did well, and where they can improve. 이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내용 전달 뿐 아니라 예시와 과제를 통해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 보길 권장합니다. 토론과 그룹 과제도 진행할 것이며, 이는 영어로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술과 개발하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업에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많이 연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화의 목적과 효과적으로 듣고 공유하는 방법을 분석할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연습하는 동안 피드백을 주고 효과적인 전략과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을 피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또한 과제물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피드백도 제공하여 학생들이 성취한 성적, 잘한 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Classes are conducted in English, which may make students feel a bit burdened. Why is it good for students who are not good at English to take this class?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다소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이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은 이유는 무엇 인가요?

The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develop their proficiency and confidence using English in professional contexts. Students who are not confident using English will benefit from lessons that are easy to understand and also very practical. Each lesson will contain language points for specific situations, and students will practice using these language points to improve their communicative abilities.

The skills covered in the course will equip students to handle real-life interactions much more effectively. Language and communication skills are key aspects of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mployers and clients are likely to expect other professionals to have these skills and abilities. Furthermore, these skills can make the difference when you need to close a deal, earn a promotion, network at a conference, or make a positive impression in a meeting or other professional events.

이 과정은 전문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능숙함과 자신감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인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각 수업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언어 포인트가 포함될 것이고, 학생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언어 포인트를 사용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루는 기술은 학생들이 실제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은 전문성 향상의 핵심적인 측면이며, 고용주와 고객은 다른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승진을 하고, 회의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미팅이나 다른 전문적인 행사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야 할 때 차이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Q Lastly, please say something to current EMBA students or prospective EMBA students who are meeting the professor for the first time. Thank you. 마지막으로 교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EMBA 재학생 또는 예비 EMBA 학생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EMBA students, I'm Dave Roberts, teacher of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and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n class. We will learn about Improving our skills and confidence using English to communicate in professional situations such as interviews, meetings, pitches, and presentations. The course will be useful, engaging, and interactive. See you there!

EMBA 학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기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담당하게 된 데이비드 로버츠입니다. 수업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뷰, 미팅,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전문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과 자신감 향상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과정은 유용하고 매력적일 것입니다.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EMBA 112기 심규선 63대 총학생회장 인터뷰



Q 심규선 원우님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112기 심규선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 112기는 여러 오프라인 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든 혜택을 받으며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대학교 학부때보다 현재 즐겁게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14년째 저의 가장 든든한 반려자인 와이프와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딸들과 함께 셋이서 성적표를 검사 받으며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회사 소개와 더불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필립모리스에서 Digital Performance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필립모리스 각 부서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활동들은 어떠한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역할은 이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기 위해 디지털 환경(플랫폼) 설계하고 다양한 액티비티들의 결과들이 성과가 좋았는지 아닌지를 판단 후 좋았을 때와 좋지 않았을 때 이후 어떠한 액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캠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캠프의 약속은 "시간에 가치를 더하다"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

통, 현재, 학업 + 복지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임기 내 성균관대 EMBA 모든 원우 분들의 시간에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이번 학기 동안 계획 중인 학생회 사업 및 활동은 무엇인가요?
63대 학생회의 첫 학기는 크게 소통, 복지, 봉사라는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첫째로 소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우들 간 네트워킹 환경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중 네트워킹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호회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114기 신입 원우들의 첫 행사인 OT에서 모든 동호회들이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사전 정보를 전달하고 가입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이후 다양한 행사 전 학생회실 모니터와 4층 라운지 공간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동호회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복지에서 원우님들이 편의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학생회실 환경 변화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공간 재배치를 완료하였고 각종 행사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모니터 및 경영전문대학원에 걸맞는 정보지 등을 비치하였으며 이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회가 주관하여 재학생, 졸업생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모금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63대 총학생회가 성균관대학교 EMBA의 이름으로 조금이나마 학교를 알리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Q 신입 원우들이 알아 두면 좋을 만한 학교생활 TIP이나 조언이 있다면?
단지 학교생활을 조금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많은 활동이 많은 결과를 남길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경영전문대학원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성균관대학교에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원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자 하셨던 모든 내용이 커리큘럼에 있고, 만나고자 했던 모든 분야의 분들이 모두 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값진 경험과 소중한 추억 모두 얻어 가시길 추천 드립니다.

Q 재학 및 졸업한 원우, 교수님들을 위해 학생회장으로서 올해 활동에 앞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63대 총학생회는 [소통, 현재, 학업 + 복지] 네 가지 부분에서 모든 원우분들에게 현재보다 더함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것을 다양하게 실험해보는 총학생회가 제공해야 하는 네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 정책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졸업생 및 재학생 원우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학년도 하계 글로벌학습세미나(두바이) 실시

지난 7월 6일(목)부터 11일(화)까지 5박6일 일정으로 EMBA 글로벌학습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의 7개의 토후국 중 최대 도시인 두바이이다. 두바이는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며 세계 금융과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학습세미나는 재학생 35명, 인솔자 3명으로 총 38

명이 참여하였으며, Winsys Trading 기업을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 한류동호회 TEKA와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였다. 글로벌학습세미나 프로그램은 EMBA 재학생인 학생들 가운데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1회만 참석한 분들을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글로벌학습세미나는 융·복합 글로벌학습 교육과정으로 미리 수강신청을 하고 사후 참여하고 나면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영대학원(IMBA) 소식

2022년 겨울집중과정 IMBA 해외글로벌세미나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IMBA)은 2023년 7월 10일(월)부터 16일(일)까지 총 6박 7일간 유럽에서 여름집중과정 해외글로벌 세미나 일정을 진행하였다. 장영봉 학과장을 비롯하여 총 36명의 교직원과 원우들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장소로 벨기에(브뤼셀, 브뤼헤),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룩셈부르크, 독일(프랑크푸르트, 쾰른) 지역을 다녀왔다. 해외글로벌세미나 기간

동안 KU Lueven University, Tilburg University,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물류센터 등의 현지 대학 및 기업 기관을 방문하였다. 이번 해외글로벌세미나는 사전수업/특강 및 오리엔테이션, 현지 특강, 사후 수업(팀별 최종 발표 및 평가)으로 구성되었다. 각 학생들 간의 팀을 구성하여 개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23 IMBA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 4월 29일(토)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대운동장에서 '2023년 IMBA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제39대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이석규 IMBA 학장을 비롯하여 장영봉 IMBA 학과장, IMBA 재학생 및 동문, 가족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당일 오전까지 무섭게 내렸던 폭우가 1년만의 한마음 체육대회를 반기기라도 하듯 개어서 정상적인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이석규 IMBA 원장의 축사로 시작해서, 장영봉 IMBA 학과장님의 축사, 그리고 39대 총학생회 이지선 회장의 선

서 및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는 150여명의 IMBA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하여 온가족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개의 개인전, 단체전 종목으로 진행되었고, 행사장에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여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지선 IMBA 39대 총학생회장은 "39대 학생회가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행사가 이번이 마지막이라서 아쉽다. 원우분들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 시간을 원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지해준 학생회 임원들과 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2023년 IMBA 42기 Welcome Party (OT) 성료



지난 8월 19일(토) 17시, IMBA 42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40대 총학생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해외에 있는 원우 및 참석을 못한 국내 원우들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유튜브)으로 함께 진행했다. 이번행사는 약 200여명의 IMBA 신입생 및 재학생을 비롯한 졸업생 IMBA 원우가 참석하였다. 행사는 크게 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42기 신입생 입학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이석규 경영대학 학장, 장영봉

IMBA 학과장, 김정태 총동문회장, 유성만 성우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후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식, 동호회/연구회 소개 등이 이어졌다. 2부는 킹고공원단의 공연에 이어 초대가수 축하공연 및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신입생 상견례 및 네트워킹의 밤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신입생들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었으며, 재학생과 신입생, 졸업생 동문 간의 단합이 도모 되었다.

성균관대-신세계아이앤씨,
경영대학원(IMBA)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신세계아이앤씨(대표 형태준)와 2월 8일(수) 경영대학원(IMBA)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학습관리 시스템(LMS) 통합 학습플랫폼 구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디지털 스튜디오 구축 ▲전담운영팀 구성 등 학생들에게 종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중심의 IMBA 플랫폼 조성 및 콘텐츠 퀄리티 관리를 통한 재학생 만족도 제고를 꾀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과 신세계아이앤씨는 맞춤형 학습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오는 2023학년도 신학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학습 전환에 맞추어 국내외 학습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교수-학생 간 자유로운 지식 공유가 가능한 지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구성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교내에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 디지털 스튜디오 구축하여 최신 경영 트렌드를 담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빠르게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지범 총장은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과정으로 명실공히 최적의 학습시스템을 갖춘 성균관대학교 IMBA는 신세계아이앤씨의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서비스를 기반으로 IMBA 교육 환경을 전면 혁신하여 국내 최고 온라인 MBA 교육기관 위상에 걸맞은 전문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형태준 신세계아이앤씨 대표는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에듀테크 기술력과 토털 교육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균관대학교 IMBA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넘어 차별화된 플랫폼과 콘텐츠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균관대 IMBA 과정은 2002년 국내 최초로 온라인 교육 MBA 과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2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하여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과정으로 명실공히 최적의 학습시스템을 갖추었다. 성균관대 경영대학 전임 교수진이 직접 강의하며, 국내 인적 네트워크 확장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세계 20여 개국 학생들 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MBA

핀테크MBA 정기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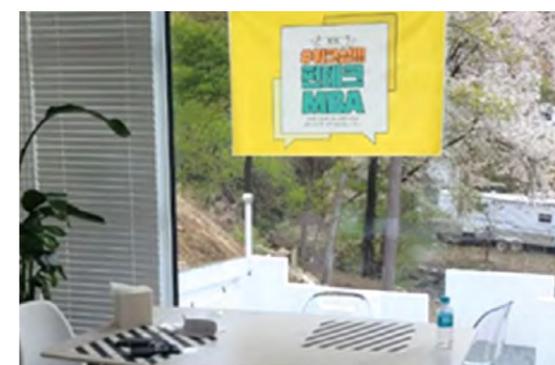
핀테크 MBA 정기세미나가 지난 5월 22일(월)에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세미나는 대한민국 핀테크 시장의 선구자인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를 모시고 “Beyond Finance”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핀테크 MBA 학생뿐 아니라 핀테크 융합전공 석박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핀테크 선도기업 카카오뱅크의 인사이트

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핀테크 MBA 정기세미나는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진행된다. 다음 정기세미나는 12월 2일(토)에 개최될 예정이며 KB금융 AI자산운용센터장 김철기 상무를 초청하여 미래 금융에 대한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핀테크MBA, 제1회 워크샵 개최

지난 4월 15일(토)~16일(일) 양일에 걸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MBA 전체 원우들의 제1회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핀테크MBA의 첫번째 워크샵으로 핀테크MBA 전체 원우들이 참석하였다. 핀테크MBA 원우 및 선후배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가지게 되었으며 원우들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번 워크샵에 참여한 원우들은 학교에 대한 애교심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었으며 MBA 원우들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참가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제5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Korea Fintech Week 2023)에 성균관대 핀테크MBA가 8월 30일(수)~31(목) 양일에 걸쳐 참가하였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총 11,000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4년제 대학으로는 성균관대학교가 첫 참여 대학으로 참가하였다.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The New



Wave of Fintech)'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의 변화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업-학교-기관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핀테크 업종에 종사하시는 예비 신입생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핀테크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성균관대 핀테크MBA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송무근 원우(핀테크MBA)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수상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한 「제6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 핀테크MBA 재학중인 송무근 원우(2기)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송무근 원우는 "소상공인을 위한 Digital BNPL 서비스"란 주제로 공모전에 참가하였으며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창의성, 완성도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175건의 아이디어 중 치열한 경쟁 끝에 개인 참가자 중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송무근 원우는 "분납결제 관련 핀테크 회사에 근무하면서 핀테크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핀테크MBA에 진학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실무에서 겪고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핀테크MBA 수업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해 보려 했다. 좋은 결과와 함께 그 답을 얻은 것 같아 여러모로 감사한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핀테크 분야에서 계획하고 있는 커리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란 소감을 전했다.



핀테크MBA-서울핀테크랩 간 우수학생 추천 장학제도 운영 협약

핀테크MBA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서울핀테크랩(센터장 직무대행 오창열)과 우수학생 추천 장학제도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핀테크랩 소속 기업 재직자가 서울핀테크랩의 추천을 받아 핀테크MBA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일

부를 최대 4개 학기까지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호혜 관계를 유지하고 각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핀테크MBA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실무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학년도 핀테크MBA 신입생 모집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MBA는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핀테크MBA는 2022학년도 1학기 신설 과정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어갈 핀테크 전문가를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한 MBA이다. 직장 생활과 학업 병행이 원활하도록 주중 저녁과 토요일에 수업이 개설되어 학생의 스케줄에 맞게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을 통해 미국 South Carolina 대학에서 Business Analytics 석사학위

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대학 유일의 BK핀테크교육연구단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 최고 수준의 전임교원 중심 강의, 풍부한 장학혜택, 복수학위를 통한 글로벌 핀테크 전문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기간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문의 상담은 핀테크MBA 행정실(Tel. 02-740-1682)로 연락하면 된다.



W-AMP 최고경영자 과정

2023학년도
성균관대 최고경영자과정 W-AMP 24기 입학식 개최



지난 4월 6일 (목) 오후 6시, 국제관 5층 리셉션홀에서 2023학년도 최고경영자과정인 W-AMP 24기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W-AMP 24기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를 위해 유지범 총장, 이석규 학장, 한문철 총동문회장, 이우현 명예회장, 이동희 명예회장 오원석 주임교수를 비롯한 내외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염동기 행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1부 행사는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유지범 총장 축사, 이석규 학장 축사, 한문철 총동문회장 축사, 오원석 주임교수의 교육과정 및 일정 안내로 진행되었고, 2부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통하여 W-AMP 24기 원우 자기소개와 W-AMP 총동문회 및 동호회 소개, 입학선물 전달로 진행되었다.

최고경영자과정 W-AMP 여성회 바자회 개최 “2023년 만나서, 나눠서, 웃어서 행복합니다”

경영전문대학원 W-AMP 총동문 여성회는 지난 4월 30일 '2023년 바자회'를 개최했다. '만나서, 나눠서, 웃어서 행복합니다! 여성회 바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된 이날 바자회는 기부바자회 마당과 먹거리 마당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이석규 경영대학장, 오원석 W-AMP 주임교수, 한문철 W-AMP 총동창회장, 박서연 여성회장과 100여명의 동문과 동문가족,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사회 각계에 포진해 있는 W-AMP 총동문들의 다양한 기부물품들은 행사장에서 판매되었고, 행사 당일 수익금은 성균관대학교 장학

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는 총동문회의 통큰 기부금과 한문철 총동문회장의 기부금까지 더해져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번 행사는 W-AMP 여성회가 기획/주관하였으며, 행사에서 제공된 모든 음식까지 직접 만드는 등, 여성회 원우들의 '직접 참여형 행사'로 이루어졌다.

박서연 여성회장(주)하이랜드미래재단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소원했던 동문 간의 즐거운 만남과 나눔을 다시 복원하는 의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화창한 날씨 속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개최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W-AMP 24기 안동 문화탐방

지난 5월 20일(토), 성균관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W-AMP에서 안동-영주 지역 문화탐방을 진행하였다.

안동은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산실이며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추로지향(鄒魯之鄉) :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라는 뜻으로, 예절을 알고 학문이 왕성한 곳을 이르는 말'이라고 불리며, 퇴계이황, 유성룡, 안향 선생 등의 사적지로 유명한 곳이다. 오원석 교수님의 지도하에 W-AMP 24기 원우 및 배우자, 경영대학 교직원 등 24명이 참석하여, 600주년 기념관에서 출발하여 안동의 안동하회마을, 도산서원을 견학하고 영주 부석사를 둘러 보았다.

W-AMP는 Wisdom Management, Wealth Management, Well-being Management의 3W를 상징하는 W-AMP(최고경영자과정)은 성균관대의 대표적인 CEO 과정으로, 성균관대 625년 역사에 기반한 인문학적 자산을 전달하고 동양철학과 역



사·문화·예술에 바탕을 둔 창의적 경영마인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ESG 등 최근 사회/문화적 이슈를 다루는 차별화된 경영인 프로그램이다.

W-AMP 24기 해외세미나 개최



우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W-AMP에서 지난 10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해외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해외세미나는 이석규 경영대학장을 비롯하여, 오원

석 W-AMP 특좌교수, 이우현 W-AMP 총동문회 명예회장, W-AMP 24기 원우 및 배우자 등 32명이 참석하여 해외 탐방과 원우들간의 소통 증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해외세미나

는 일본 나고야, 알펜루트 지역, 다카야마 지역을 방문하여 일본의 역사, 문화, 자연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날은 일본의 3대 명소중 하나인 나고야성을 둘러보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일본 전통가옥 마을 시라가와 합장촌을 방문하여 나고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W-AMP 24기 원우들이 체험할 수 있었다. 둘째날은 이번 세미나의 메인 일정으로, 친환경적으로 구성된 산악 지역인 알펜루트를 둘러보고 일본에서 가장 깊고 긴 구로베 협곡과 구로베 댐을 방문하며 풍요로운 대자연

을 만끽할 수 있었다. 셋째날은 주요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된 다카야마 지역의 옛거리를 방문하여, 나고야 근교 지역 전통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마지막 날 저녁에는 W-AMP 24기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W-AMP 24기 원우의 밤”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만찬 시간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일본 해외 세미나를 통해 기존에 돈독했던 W-AMP 24기 원우들간의 우의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2023학년도 성공관대 최고경영자과정(W-AMP) 24기 수료식 개최



지난 10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국제관 5층 글로벌 R&E 라운지에서 2023학년도 최고경영자과정(W-AMP)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2023학년도 제24기 W-AMP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유지범 총장, 이석규 경영대학장, 오원석 W-AMP 특좌교수, 이우현 총동문회 명예회장, 이동희 총동문회 전 회장, 총동문회 임원 등을 비롯하여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수료식의 1부 행사는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와 수료증 수여 및 공로상, 으뜸상, 우정상 시상에 이어 유지범 총장의 축사, 이석규 학장의 축사, 오원석 주임교수의 축사, 이우현 총동문회 명예회장과 이동희 총동문회 전 회장의 격려사, 윤원석 원우회장의 답사로 진행되었다. 유지범 총장은 W-AMP 24기의 수료를 축하하며,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석규 학장

은 특별히 이번 W-AMP 24기의 원우로 함께 참여하여 감회가 남다른 수료식이며, 앞으로 수료식 이후에도 24기 원우의 단합에 힘쓸 것임을 축사를 통해 전하였다. 또한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한문철 W-AMP 총동문회장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와 축하인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수료식 2부 순서로 만찬을 즐기며 24기 원우들의 소감을 함께 나누고 24기 원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만찬을 진행하면서 총동문회와 동호회를 소개하고 원우들과 동문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W-AMP 24기 원우들은 수료를 맞이하여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뜻을 모아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여 수료의 의미를 더하였다.

경영학과 이은주 교수 연구팀,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결과 발표



경영학과 이은주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학술지 Psychology & Marketing에 의료 소비자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의료 인공지능을 어떻게 경험하고 후속 치료를 위해 이러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연구팀은 본 연구에서 '의료 AI와 인간 의사로부터 받는 개인화된 서비스가 의료 소비자의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유형(인간 또는 AI)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고도로 개인화된' 의료 상담을 받은 후 '덜 개인화된' 상담을 받았을 때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덜 개인화된'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인간 의사와의 후속 방문을 선호했다. 이를 통해 '공감력'이라는 변수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유형과 재방문 의향 사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고도로 개인화된' 의료 상담의 경우 '덜 개인화된' 의료 상담보다 전대상피질이 더 활성화되며 이러한 활성화는 참가자의 재방문 의향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측두후두방추피질은 개인화의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 의사를 방문했을 때 더 활성화되었으며 이 활성화도 참가자의 재방문 의향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을 고도로 흉내낼 수 있는 의료 AI조차 현재로서는 인간 의사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인간 의사는 의료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팀은 행동 실험과 함께 신경 영상 기법(fMRI)을 활용하여,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지각, 감정 및 의사 결정의 신경 과정을 밝혀냈다. 이는 설문 조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뉴로마케팅에 대한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주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장이연 제1저자는 “마케팅, 심리학, 신경과학 등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연구방법론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 웰빙, 헬스케어 분야에서 신경과학과 감각 마케팅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Psychology & Marketing(IF 6.7)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Consumers' Responses to Personalized Service from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Doctors

※저자명: 장이연(제1저자), 담문영(제2저자), 이은주 교수(교신저자)

김용석 교수&오종민 교수, SKKU Teaching Award 수상

우리 경영대학의 김용석 교수(경영정보 전공)와 오종민 교수(재무 전공)가 SKKU Teaching Award 수상하였다. SKKU Teaching Award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선도한 교,강사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교육 역량이 뛰어난 교,강사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동기부여를 진작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발전 기여도, 교육방법 혁신성,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교육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2011년 최초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93명을 선정하였으며, 교육 역량이 뛰어난 교·강사에게 자긍심과 명예를 부여하고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동기부여를 진작·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2023 SKKU Teaching Award 수상자인 김용석 교수(경영정보 전공)와 오종민 교수(재무 전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SKKU Teaching Award 수상_김용석 교수 인터뷰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2023 SKKU Teaching Award에 선정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상을 수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스러운 교육관 및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료 교수님들이 많으신 데 제가 받아서 겸연쩍기도 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더 열심히 잘 가르치라는 격려로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좋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2023 SKKU Teaching Award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비결이 무엇인지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언급하는 점은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한다는 것과 다양한 현실 사례들을 많이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수상 시 선정 사유가

나열되어 있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강의 평가 점수, 교육 과정 개선 노력(교육위원회 활동 및 교육개발센터 워크숍 참여 등), 그리고 경영대학의 글로벌 교육 확대 기여(국제어 수업 제공, 교환학생 적극 수용)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하고 계시는 활동인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 절반 정도가 교환학생이어서 국적이 다양합니다. 우리 성대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협업하는 기회를 갖도록 다채로운 조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어색함이 가득했던 첫 조 활동이 있던 날,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을 위해 자기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주전부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금새 웃음꽃이 가득하고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앞으로 진행할 연구가 뭘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중에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관련 연구를 언급할까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자의 의사 결정 및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의 투자 유치 성공을 이해하고자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연구에서는 1) 소셜 네트워크상에 많은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과 2) 많은 관련 투자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투자 결정이 다른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이 사업 아이템 품질 평가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경험재 vs. 탐색재)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습니다.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고, 현재는 논문 작성 마무리 중입니다.

이외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팀 협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사업 기획, 제품 개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자주 TFT나 프로젝트 팀이 구성됩니다. 이때,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뤄진 팀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지만, 의견 조율과 통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입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업무 생산성 증대 효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팀 업무에 도입되었을 때, 팀 다양성이 가진 장단점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SKKU Teaching Award 수상_오종민 교수 인터뷰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2023 SKKU Teaching Award에 선정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부임해 온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온라인 수업 실시 등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학교의 지원, 동료 교수님들의 도움, 학생들의 협조 등으로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나은 강의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할지 돌아보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SKKU Teaching Award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큰 영감과 울림을 줄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궁금합니다. 혹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Corporate Finance쪽 연구를 주로 해왔고 특히 ESG, 기술혁신, 기업문화 등 기업의 다양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주요 관심 분야입니다. 현재 ESG와 글로벌공급망과의 관계 등 흥미로운 연구 주제들을 발굴하여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 SKKU Teaching Award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기 보다는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한 점이 좋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이메일 질의에 24시간 내에 답변해주는 저만의 방침은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왔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상담이나 zoom을 통한 상담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늘려 있다는 점만으로도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어서 일종의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보이지 않게 포장된 물건을 두고 학생들이 경매를 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참여가 저조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입찰가가 빠르게 오르더니 제 예상보다 높은 가격까지 순식간에 오르더군요. 결국 상자 속 18만원 상당의 무선 헤드폰은 제 예상보다 이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물건의 정체를 알려주고 나서 진행된 두 번째 경매에서는 의도했던 대로 거품이 잔뜩 꺼서 3,500원 짜리 노트가 무려 50만원에 낙찰되었지요(두 사람 모두 돈은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상품을 받아갔습니다). 효과적으로 개념이 전달된 것 같고 학생들 호응도 좋아서 향후에도 색다른 배움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저는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혁신적인 기술과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기업문화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기업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유형자산 보다는 이와 같은 무형자산들이 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분야를 계속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따라오면서 함께 좋은 수업을 만들어 준 학생들 덕분에 영예로운 Teaching Award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재치 있는 강의평가 피드백도 하나 하나 다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학과 공부 외에도 자격증 공부, 취업 준비 등으로 우리 학생들이 참 바쁘네요, 그 와중에도 대학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놓치지 않고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주 교수, 아시아태평양리스크보험학회(APRIA) 제26대 회장 취임



성균관대학교는 정홍주 경영대학 무역학과 교수가 지난 1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대학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리스크보험학회(APRIA, Asia Pacific Risk Insurance Association) 제27차 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다. 1997년 창립된 APRIA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20여개국, 150여명의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을 두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2012년 제15차 APRIA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학술행사에는 4일간 15개국, 160여명이 발표, 토론, 사회자로 참가했다.

정홍주 신임 회장은 “앞으로 1년간 아세안 10개국 등 학회 참여국의 저변확대와 리스크관리 분야의 지식확산에 힘을 쓸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같은 맥락에서 오는 2024년 7월 28~31일 열리는 APRIA 제28차 총회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라오스국립대학에서 개최한다.

정 회장은 이에 “한국인의 버킷리스트에 포함된 불교국가 라오스에서 새벽에는 승려들의 탁발행렬, 저녁에는 메콩강 노을을 즐기며 바쁜 삶을 되돌아보고, 낮에는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가에게 학술지식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으로 입지가 어려운 한국에게는 아세안 교류확대가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백원선 교수, 한국회계학회 50주년 기념 회계연구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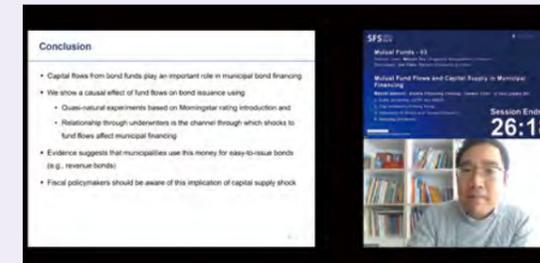
경영전문대학원의 백원선 교수가 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회계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회계연구인상을 수상했다.

백원선 교수는 우리 대학에 재직하며 회계학연구에 36편의 논문을, 회계저널에 4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한국회계학회에서 발간하는 두 개의 학술지에 총 4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2008년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을 맡아 학회의 학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회계연구인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경영대학은 핵심가치인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성공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3학년도 1/2학기, 뛰어난 역량을 갖춘 신입교원을 초빙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경영대학 가족이 된 신입교원인 <재무 전공>의 ‘오지열 교수’와 <매니지먼트 전공>의 ‘박태운 교수’를 만나 ‘주요 연구활동, 전공,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오지열 교수



안녕하세요. 오지열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성균관대 경영대학 식구로 함께 하게 된 오지열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출국하여 영국에서 12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치고 2012년에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교이자 경제학 교수로서 사관생도들을 가르치면서 군 복무를 마치고, 2015년 가을부터 지난 학기까지는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함께 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전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재무 전공이면서 일반대학원에서는 핀테크융합전공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기관투자자들의 행태, 특히 그 중에서도 펀드와 ETF, 그리고 연기금 관련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관련 연구 또한 활

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재무 전공에서 이미 상당 기간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지만, 해당 연구 분야의 도드라지는 특징 중 하나라면 머신러닝 기법 등과 같은 핀테크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융합전공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ESG 관련 연구만 하더라도, 방대한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ESG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려면 빅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와 금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마다 굵직한 사건들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IMF 사태 때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의 경제사정이 하루아침에 얼어붙는 것을 힘겹게 지켜봐야만 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전공을 고를 때 카드대란으로 많은 집들이 다시 한번 고통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시작과 함께 리먼 브라더스와 AIG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금융시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제게 여러 번에 걸쳐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나아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식구로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대학의 주요 미션인 국제화와 리더십, 그리고 혁신에 기여하는 교수

가 되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영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친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우리 경영대학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꿈은 종로구 명륜3가에 있더라도,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글로벌한 경험과 마인드를 함께 할 수 있는 강의실을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이들보다 한 발짝 더 글로벌하고, 한 발짝 더 자유롭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경험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교수님께서 맡은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학기에 학부 재무관리 수업을 맡을 예정입니다. 재무관리는 재무 전공의 첫 얼굴과도 같은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재무관리를 잘 이해하고, 배운 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교과과정에서 이어지는 다른 재무 과목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 또한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심화 과목들을 좀 더 수월하게 접하고 깊이 내재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플립러닝 등의 기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중요한 개념을 직접 실생활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의 시작부터 중요한 개념들을 영어로 접하게 하여 향후 외국과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최근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의 특성이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기업의 부도 위험을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부도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모형들은 기업의 특성, 혹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특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인지, 이익을 잘 창출해내고 있는 기업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제가 공저자들과 함께 최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특성에 못지 않게 누가 기업의 채권자로 참여하고 있는지, 즉 투자자의 특성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유출입에 민감한 펀드인지, 아니면 연기금이나 생명보험사와 같이 자금 유출입에서 좀더 자유로운 기관투자자인지에 따라요. 지금까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 쪽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누가 자금을 제공하는지, 즉 공급 쪽에 대해서도 연구가 더욱 많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구성이 점점 바뀌고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는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제 첫 직장이었던 육군사관학교에서 함께 했던 전공생도들과 계속 연락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위, 소령으로 군에서 중간간부가 된 그들과 이따금 만나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교육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함께 고민을 공유하곤 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내린 결론이라면 결국 “leading by example,” 그러니까 직접 실천하는 교육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구에 대한 열정은 말로, 일방적인 “소통”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즐겁게, 그리고 또 일관되게 연구하는 모습을 교육자가 먼저 보일 수 있어야 연구의 즐거움이, 또 그 결실이 학생들에게도 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불리 조언을 건네기보다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까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MBTI 검사를 해보면 T보단 F 성향이 엄청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몇 년 전 인기 있었던 드라마 “도깨비”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아이를 몇십 년이 흘러 어느덧 훌륭한 삶을 마무리한 할아버지로서 다시 만났을 때, 도깨비가 그에게 건네는 응원과 위로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되돌아보면, 삶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과 기대가 너무도 컸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대학에 입학했으니 취업 준비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하고... 주위에서 다양한 조언, 훈계, 어쩌면 오지랖일지도 모르는 말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에 매번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페이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주눅 들 필요는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매번 주위에 내 선택이 어떻게 비쳐질지, 사회의 시선은 어떠한지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꼭 건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고민 끝에 내리는 선택에 오답지는 없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돕는 교육이 중요하다”

박태운 교수



안녕하세요. 박태운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월부터 새로 부임하게 된 매니지먼트 전공 박태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Owe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에서 7년간, 그리고 미국 Cornell University, Human Resources Studies 학과에서 4년간 교수 생활을 한 이후에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교수로만 11년간 생활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고국에 들어와서 캠퍼스의 학생들을 보니 무척 설레고 기쁩니다. 특히 최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이 해외에서도 눈에 띄 정도로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는데 그런 성장 스토리에 저도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전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조직과 종업원이 함께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직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조직-종업원 관계가 어떤 환경에서 더 효과적일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직의 제도들, 특히 이직제도, 보상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의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했네요.



예전에 학부로 경영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는 취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갔었는데 당시에 IMF 금융위기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소위 잘나가던 직장들이 문을 닫고, 모두가 일과 생활에 대한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을 접하고 나니, 취직을 잘하는 게 어떤 의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경영학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어 고민했었는데, 매니지먼트 분야가 조직과 종업원의 이해관계 균형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게 재미 있어서 공부하다 보니 어느덧 관련 지식 생산자 및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캠퍼스 여기저기서 팀플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덩달아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뜻 깊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의실 안팎에서 돕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연구 및 강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유학도 도와주고, 후학도 양성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경영대학에 연구와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함께 대화하면서 많이 배우고 협업도 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맡은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방법론을 강의하고 있고, 내년에는 인사관리 혹은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직이 효과적으로 경영되기 위해서는 전략이나 목표를 수립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업무를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런 실천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science가 아닌 art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 강의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사례들을 같이 논의하고 관련된 scientific evidence를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조직과 종업원의 관계 형태 및 관련 경영 제도들을 연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해외 사례들과 데이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더 가깝게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조직을 변화시켜 보는 실천적 연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돕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좋은 질문을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질문을 하려면 그만큼 스스로 연구도, 고민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주고 그런 질문과 토론을 자유롭게 할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너무 조금해 하지 마세요. 매사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으로 임하는 건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이 꼭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노력이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 많이 해보세요!

**동문회소식****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2023년 신년인사회 개최**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는 지난 2월 8일(수)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조병두국제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수여된 '성균MBA경영인상'은 이재범 (주)명문감정평가법인 대표가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용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유지범 총장, 차동욱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김진기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장, 한상만 대학원장, 지성우 대외협력처장, 이석규 경영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기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기금」 4억 원을 전달하였다. 김진기 회장은 “기부금이 경영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기 총동문회장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성균가족들과 마음놓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대융합을 통해 다양한 연구와 함께 우리가 가진 다양한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총동문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범 총장은 “코로나와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경제위기는 심해지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교육기관인 대학 역시 급격한 상황변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표를 하나하나 묵묵히 달성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

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동문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말도 더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성균MBA경영인상' 시상도 진행됐다. 이재범 수석부회장은 30여년을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며 부동산 가격 적정화에 기여하였고, 2017년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하여 경영인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균MBA경영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공로상'에는 이용국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고문, 이우현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고문, 박재홍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前 감사, 'MBA원우상'에는 인재한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집(경영 74) (주)베이스에이치디 회장, 제39대 성균관대 총동창회장 선임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성집)는 제39대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 김성집 (주)베이스에이치디 회장이 선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신임 김회장은 4월 26일(수)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조병두국제홀에서 개최된 '2023년 성균관대 총동창회 총회'에서 차기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되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74학번)를 졸업한 김회장은 2008년 총동창회 이사, 2010년 상임이사, 2018년 부회장, 2022년 수석부회장을 거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또한, 모교와 총동창회에 3억 원을 기부하는 등 모교발전과 동문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동문간 가교가 되고,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화합과 참여의 「연결플랫폼 구축」이라는 모토 아래, 동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교 성균관대학교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든든한 동문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IMBA 박성균 동문, 기술·경영 혁신대전서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 대학 경영대학원(IMBA) 박성균 동문(경영원 2015, IMBA 25기)이 지난 10월 1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년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혁신 유공자 시상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 표창은 우리나라 771만여개의 중소기업을 대표로 수상하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 박성균 동문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영광이며 더 큰 두께감과 깊이에 대한 의지를 다져본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박성균 동문은 주식회사 엠티아이 대표이사로서 우리 대학 경영대학원(IMBA)에 2015년에 입학해 2017년 2월 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IMBA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성균관대학교와 경영대학원(IMBA)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기부금 소식

주용돈 원우(주대한소재 대표이사, IMBA 41기), 장학기금 1천만원 기부



주용돈 원우(주대한소재 대표이사, IMBA 41기)가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7일 경영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경영대학 장학기금」을 전달하

였다. 주용돈 원우는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되었으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석규 경영대학장, 장영봉 IMBA 학과장, 김상균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이 참석하였다.

주용돈 원우는 현재 IMBA 41기로 재학중이며 대한소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대한소재는 2011년 설립이후 비금속(알루미늄, 흑연, 가탄제 등) 제조 및 분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해외에도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내화원료와 비금속원료를 재생하여 환경복원에 힘쓰며, 윤리경영과 인재경영을 통하여 탄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의 비전으로 하는 회사이다.

IMBA 38기 졸업생 일동, 발전기금 500만원 기부



2023년 8월에 졸업하는 경영대학 IMBA 38기 졸업생 일동은 경영대학의 숙원 사업인 제2 경영관 설립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발전기금을 전달한 'IMBA 38기'는 2021년 8월에 IMBA 38기로 입학하여, 제38대 총학생회를 이끌면서 IMBA에서는 최초로 '리커넥트데이(Re-connect day)'라는 슬로건으로 신입생O.T 행사에 졸업생을 비롯한 재학생, 신입생까지 IMBA 전체를 아우르는 역대급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외지식나눔세미나'라는 주제로 국내-해외간 원우들의 단합을 위한 한마음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로 네트워크가 단절되었던 IMBA에 새로운 중흥의 시대를 이룩한 기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영대학 이석규 경영대학장(겸 경영대학원장), 장영봉 IMBA학과장, 안희준 전(前)경영대학장 등 경영대학 주요 내빈이 참석하였다. 발전기금을 직접 전달받은 이석규 경영대학장은 "IMBA 38기 원우분들께 감사드리며, 38기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8월 19일 2023년도 경영대학 하계 졸업식에서 가장 첫번째 순서로 전달식을 진행하였으며, 발전기금 전달은 IMBA 38기 박영우 원우가 대표로 전달하였다. 이날 38기 대표로 전달한 박영우 원우는 "제 2 경영관 설립을 통해 경영대학의 발전과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SKK BUSINESS SCHOOL

VISION 2030

GLOBAL INNOVATIVE LEADING
BUSINESS SCHOOL



MISSION



Student Success with AI Interdisciplinary Talents

- Python Coding / AI
- Global Experience with Exchange & Internship
- Capstone Projects / I-core Courses



R&D for Management Knowledge

- Cross Management
- Global Collaboration
-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olve Management Problems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http://biz.skku.edu>